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전 국 (080)064-1300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대원사 한인문화원 2000년 완공…내년 초파일 만등공양

국제선원·동서문화원·한인학교·박물관 등 운영계획

하와이서 꽃피는 한국불교

"Aloha."

하와이 원주민의 인사말 '알로하' 소리와 함께 코끝을 찌르는 꽃냄새가 이국의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한다. 진주만에서 호놀룰루시 번화가를 거쳐 팔로우계곡으로 들어서면 멀리 보이는 야자나무숲 사이로 우리나라 전통건축 양식의 건물이 눈길을 끈다. 이곳이 지난 23년간 5만여 한인교포들에게 '또 하나의 고국'으로 불리는 대원사(주지 도현)다.

주거지에 자리잡은 대원사에 들어서자 일주문이 먼저 반기고 잔디밭이 넓게 깔린 경내에는 2기의 석탑이 우뚝 서있다. 정면으로 보이는 대웅전은 한국의 전통양식으로 건립됐으며 우측으로 1년내내 연꽃이 피는 연못위 구름다리를 건너면 명부전과 선방 그리고 법고와 범종이 모셔진 종각이 눈에 들어온다. 대웅전 좌측으로는 석조미륵보살반가사유상과 해수관음보살상이 와이키키해변을 향해 자비광명을 발하고 그뒤엔 한인문화원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교민들이 이름지은 보타산엔 무지개가 유난히 짙게 드리워져 있고, 호놀룰루 시내 번화가와 쪽빛 와이키키 해변이 아스라이 내려다보이는 선방에는 6명의 수행납자가 화두를 들며 용맹정진한다. 법당에도 10여명의 보살들이 기도정진에 여념이 없다. 하와이 대원사가 지금까지의 포교 성과에 바탕한 수행과 문화포교로 새로운 세기를 맞을 채비를 하고 있으며 그 서곡의 진원지는 대원사 한인문화원.

1986년 국회정각회와 모국 불자기업인들의 화주, 당시 주지였던 대원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한인문화원은 80%의 건축공정이 진행되는 도중, 인근주민들이 건물의 높이가 규정보다 높다는 이유를 들면서 차질을 빚었다. 호놀룰루시가 공사중지를 명령하여 10여년간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다 96년 부임한 주지 도현스님의 노력으로 올해 8월 하와이 주법원이 2m를 낮춰 내년 3월까지 재시공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마무리 공사와 내부공사가 발빠르게 진행, 2천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원사는 한인문화원을 포교와 수행의 종합도량으로 이곳을 장엄한다는 방침이다. 2003년 한국인의 하와이이주 1백주년을 맞아 한국의 민족문화와 불교문화를 홍보하여 동서문화가 넘나드는 가교역할을 한다는 계획으로 추진중이다.

또 지구촌시대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대원사 한인문화원은 1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사와 식당도 마련하고 있다. 고국의 불자들에게 개방하여 해외연수와 수련의 장소로 사용케 하는 것은 물론 여행객들도 사찰에서 숙식하며 관광과 신행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

지하1층 지상5층에 건평 3천5백평 규모인 전통양식의 한인문화원에는 대강당, 광화문체연구소, 국제선원, 한인학교, 도서관, 박물관, 문화센터, 하와이 불교TV 스튜디오, 불교교양대학, 동서문화원이 들어선다.

대강당은 각종 회의실과 연회장 공연장 강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대와 관람석이 2층식으로 꾸며지며, 한국관계 도서 5천여권과 시청각 자료를 구비하게 될 민족문화도서관도 개설된다. 또 미국인 코넬박사가 기증한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반출된 문화재 5백여점을 전시하게 될 박물관, 교민 2·3세들과 미국 어린이들에게 한글 태권도 서예 도예 다도 꽃꽂이등을 교육할 한인학교도 설립한다. 이와 함께 하와이대학 종교학과 8명의 교수진으로 동서문화원을 설립, 현지 미국인포교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원사 한인문화원 불사는 앞으로도 지붕개축 및 내부공사, 인테리어 비용으로 1백30만불(약 13억원)의 불사금이 필요해 현지는 물론 고국 불자들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하다. 대원사는 불사의 중요성과 불사금 조달을 위해 내년 초파일을 앞두고 만등불사 대법회를 개최한다. 1만개의 전통등을 밝히며 한인문화원 불사의 의미를 전하겠다는 것이 대원사의 뜻이다.

올해 동안거를 맞아 미국 최초의 한국스님 선방인 태평선원(조실 송산)을 개원하고 12월3일 동안거 결제에 들어간 것도 대원사의 중요한 체질 개선중 하나. 6명의 스님이 3월 2일까지 3개월간 용맹정진 동안거에 들어간 대원사는 선불교 전통을 이어받고 수행중심의 사찰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동안거에는 재가불자들도 아침·저녁으로 1시간씩 참가하고 있다.

또한 불자들의 신심함양과 로컬문화의 다양한 접촉을 위해 외국스님·학자 초청강연회도 다양하게 열고 있다. 이와 함께 불교강좌, 스님초청법회, 매주 1회 실시하는 한글학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주 화·수·토요일 김정빈법사(소설 '꿈'의 작가)와 차윤진법사 김덕조법사(前 군법사)가 근본불교와 불교사를 강의하는 불교강좌도 실시중이다.

한글학교에는 초·중학생 40여명이 한글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교사는 한국에서 유학온 학생들로 고국의 경제난에 따라 대원사에서 방사를 제공받고 한글학교 자원봉사활동으로 보답하고 있다.

공개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대원사의 운영주체는 신도회(회장 김정국)다. 대원사 신도회는 대중스님과 재가법사, 각 단위 신도회장등 사부대중의 모임체인 원로회의를 구성하여 매주 법회후 모여서 사찰현안을 처리하고 있다. 한인문화원 건립불사를 위해 신도회는 빈깡통 팔기, 만두·김치·된장만들어 팔기 등의 바자회를 펼치고 있다. 특히 20년전부터 만들어온 김치는 물론 매주 1회씩 노보살님등 신도들이 모여 빚는 대원사 만두는 한인사회에 인기가 높아 주문량이 밀려 주 2회씩 올려야 할 정도로 호응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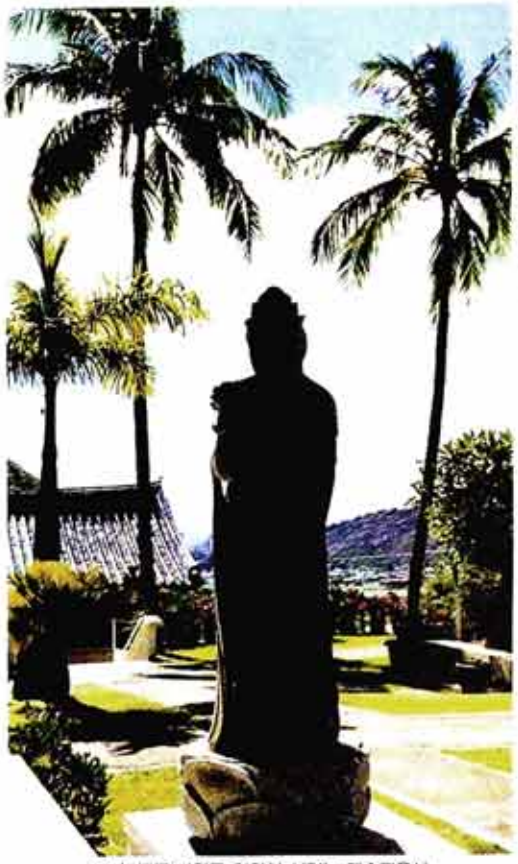
또 사찰과 신도회 차원에서 하와이 민주당과 공화당에 가입하는등 정당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생활환경 개선단체인 'FACE(페이스)'에도 가입해 포교기반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하와이=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하와이 대원사는

- 1975년 7월 기대원스님이 호놀룰루 한국총영사관에서 신도 90여명과 첫 법회 개최
- 1975년 9월 하와이주정부에 종교법인 등록
- 1979년 호놀룰루 팔로우계곡에 3천5백평 부지 매입
- 1982년 대웅전 명부전 종각 시리즈 일주문 건립
- 1983년 세계불교석학 초청 세계평화학술회의 주관
- 1986년 건평 3천5백평의 한인문화원 착공
- 1996년 신임 대원사주지에 도현스님 취임
- 1998년 한인문화원 건립공사 재개, 2천년 완공계획
- 1998년 12월 태평선원 개원 동안거 결제

◇하와이 주법원 판결에 따라 10년만에 다시 불사를 시작한 하와이 대원사 한인문화원. 건평 3천5백평의 매머드 종합화관이 2천년에 완공된다.



◇와이키키비치를 향하여 서있는 해수관음상.

◇하와이 대원사 태평선원 정진대중.

◇대원사 불자들이 김정빈법사의 강의를 듣고 있다.

◇한글학교 초등반 어린이들의 수업장면.

인터뷰 대원사주지 도현스님

"신세대교포 포교 전력"

"한국문화원의 건립은 교포 2·3·4세들을 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마련하고 한민족을 한데 모으는 구심점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대원사 주지 도현스님은 한인문화원이 개원되면 그림전시회 사진전시회등의 부대행사를 수시로 열고 신세대 교포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미국인들에게 불교를 전파하는 것이 과제"라며 "동시번역체계를 갖춘 교리공부와 법회, 참선수행 프로그램으로 현지인 포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현스님은 "4천여평의 부지를 새로 마련 유치원과 양로원 납골당을 건립, 종합적인 복지사찰이 되도록 하겠다"며 "대원사 한인문화원은 해외불사 차원이 아니라 지구촌시대 국내불사 확대라는 인식으로 동참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도현스님은 80년 삼각산 도선사 재무를 거쳐 도미, 83년 미국정부 장학생으로 선발돼 미국 버클리대학을 졸업했으며 동경대학 울란바토르대학등에서 수학하고 중국 북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인문화원건립 화주가 돼주세요"

대원사 한인문화원 완공을 위해서는 고국의 향기를 느낄수 있는 따뜻한 불심이 필요합니다. 한인문화원건립에 화주가 돼주세요. 만등불사 동참금은 1인1등 1만원(1구좌)으로 누구나 수시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계좌: 서울은행 14104-0219307 예금주 권도현

자세한 문의는 001-1-808-735-7858(미국 대원사)

목숨 아끼지 않은 포교

◇해인사 벽화 '이차돈 성사의 순교'.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23

순교

한 종교가 어떤 지역에 정착, 확산되려면 선각자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포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종교의 전파를 위해 박해를 받다가 숨져간 순교자들이 종교역사에는 무수히 많다. 부처님 재세시에 부루나존자는 험하고 악조건의 변경포교를 자원, 수많은 사람들을 불교에 귀의시키고 그곳에서 죽었다. 가톨릭에서는 순교를 뛰어난 덕행으로 보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자를 성인이라 칭송하고 순교자를 장사지낸 묘위에는 교회당이나 기념당을 세웠으며 그들의 순교일을 각별하게 기념하고 있다.

신라에 불교가 들어올 때 불교의 홍포를 위해 목숨을 내던진 이가 이차돈(506~527)이다. 신라 법흥왕때 왕이 불교를 국교로 삼아 국운의 번영을 도모하고자 했으나 여러 신하들의 반대가 극심했다. 이차돈은 왕과 약속하고 천경림에 절을 짓기 시작하는데 왕의 명령없이 단독으로 시작한 것이 밝혀져 사형을 당한다. 이차돈의 목을 베자 머리는 멀리 날아가 금강산(경주) 곡대기에 떨어졌고 잘린 목에서는 흰 젖이 수십장(丈)이나 솟아올랐다고 한다. 왼쪽 그림은 그러한 광경을 그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 사도 바울, 저스틴 등 가톨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였다. 오른쪽 그림은 성녀 헤르미오네의 순교장면을 게오르기우스가 그린 것이다. 잘려진 목에서 붉은 피가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다.

학림〈예천 법화암 주지〉

◇게오르기우스作 '헤르미오네의 순교', 1000년경, 바티칸미술관 소장.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